

순천시, 전남 동부권 성장 대전환 프로젝트 총력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전...인재·인프라 확보 부지·용수·전력 등 최적지 평가...“산업·경제 통합”

순천시는 전남동부권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RE 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시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산단 유치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전남 동부권 산업위기 극복과 인구·경제 구조를 바꾸는 균형성장 대전환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둔 지금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통합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동부권의 산업·인재·인프라 등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춘 최적지로 평가된다.

해룡면 일원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 여유 부지가 있어 향후 확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암댐·상사댐 기반으로 풍부

한 청정용수를 보유하고 있고, 해상풍력·태양광 등 고품질·고안정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도 갖추고 있다.

광양·여수 국가기간산업 기반의 소부장과의 확장성과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 여건도 마련돼 있다.

광양항·여수공항 물류 인프라와 신대·선월 등 광양만권 배후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국가산단 유치 경쟁력으로 꼽힌다.

시는 국가산단 유치 시 철강·화학 산업위주 극복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 광주(후공정)·동부권(팹·소부장) 연계를 통한 초광역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고용 4만명·정주인구 15만명

유입 기대에 따른 100만 인구 광역생활권 형성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전담팀 신설과 TF 운영, 반도체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남·광주 통합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유치 전략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는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과 경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최고의 선택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 도양복합문화센터, 행복 거점 부상

지난해 7월 개장...누적 이용객 2만여명

고흥 도양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한 도양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체육 단련실, 청소년문화의 집,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남부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된 이 시설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양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과 체육 단련실은 개장 이후 누적 이용객이 2만여명에 달하며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설비를 갖춘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주변 경관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수영장과 체육단련실에 전문 강사와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도양복합문화센터는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도양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김대영 축구장, 도양 농어촌종합체육관, 올레 준공 예정인 도양 스포츠클럽 등 스포츠 기반시설과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 도양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수영하는 모습.

곡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내년 준공 목표...58억 사업비 투입

곡성군은 최근 체육시설 트렌드를 반영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는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곡성만의 특색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지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심청호문화센터 부지가 최적지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약 90%가 군유지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난이도 구성으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골프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추진 방향을 주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사전에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현 기자 hnnews1@gwangnam.co.kr



"마을 안녕과 가정 평안을" 구례군은 최근 신촌마을에서 2026 구례잔수농악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구례잔수농악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통에 따라 정월 초사흘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만국을 시작으로 마당밭이, 판굿까지 이어지며 주민들이 흥겨운 분위기를 느꼈다. 사진제공=구례군

여수, 남해안 거점도시 도약 '온힘'

1조1000억 규모 사업 활동 본격화

여수시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에 들어갔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주재로 '2027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

회'를 열고 국비 확보 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119건, 1조139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는 전년도 건의액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다. 주요 발굴 현안은 신규사업 49건(3769억원), 계속사업 70건(7622억원)

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인 AI전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실증사업 등 신산업 분야와 대규모 SOC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의 지역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섬박람회 사후활용 연계사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2027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가 사업 발굴

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구체화해 3~4월 중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현구 부시장은 "2027년은 섬박람회 이후 재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건의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도시' 시동

상반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중장기 로드맵 수립

보성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상반기 중 '보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발전 가능 입지 발굴, 발전원별 추진 전략, 주민 참여 사업 모델, 계통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득량만 간척지와 보성강, 주암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일사량 등 지역 여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유휴부지 등 공공자산도 발전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이 희망하는 발전 가능 지

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적극 도입해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환원해 안정적인 주민 소득원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이다"며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66@

장흥, '전남장흥역' 셔틀버스 신규 노선 개설

열차 도착시간 맞춤 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장흥군은 '전남장흥역'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과 장흥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농어촌버스 신규 노선을 최근 개설해 운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장흥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하루 6회 운행했지만 열차 도착 시간과 연계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택시나 자가용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철도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열차 운행 시간에 맞춰 맞춤형 셔틀버스 노선을 새롭게 마련했다.

신설 노선은 전남장흥역~장흥버스터미널 간 약 1.1km 구간을 순환 운행하며, 열차 도착 시간 약 5분 전 역에 대기해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

다. 버스는 하루 총 8회(매일 6회, 금·토·일 2회 추가) 운행하고, 장흥역에서 약 10분간 정차한 후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신설로 철도와 버스 간 환승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철도 이용객 및 관광객 이동 편의 증진,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지역 상권·관광 활성화, 주민 교통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셔틀버스 운행이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